

6·25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 남가주 범교민 행사 순항

오는 6월 25일(목) 오전 10시 충현선교교회서 진행 및 온라인 생중계 예정



6·25 한국 전쟁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남가주 기독교 단체 대표들과 군 관련 단체장들은 지난 26일 충현선교교회에서 준비 모임을 가졌다.

한국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6·25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남가주 기독교 단체와 군 관련 단체가 연합해 기념 및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목) 오전 10시, 충현 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에서 개최될 6·25 한국 전쟁 70주년 행사는 1부 예배 및 기도회와 2부 감사 및 추모 행사로 진행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세계기도모임 서부지회(회장 김영구 목사)와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 및 관련 기독교 단체들과 군 관련 단체들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용기, 노고를 기리고, 참전용사 60여 명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준비위원장 김영구 목사는 “금번 6·25 70주년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한반도 분단의 아픔과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젊은 세대가 기억하고,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진 지난 국가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와 마찬가지로 뜻깊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미주 전역에 자리한 한인교회 연합회 및 교계 단체들도 6.25 한국전쟁 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강태광 목사 (323-578-7933) 김동욱 기자

다시 모인 성도들, 감염 예방 수칙 지키며 반가움 나눠

나성한미교회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예배 “Park and Pray” 진행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는 지난 24일,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예배 “Park and Pray”를 진행했다.

나성한미교회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주일 1부, 2부,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토요일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를 라이브 방송과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 왔다.

교역자들은 교회 입구에서 입장하는 성도들에게 예배 안내문과 일회용 성찬 세트, COVID-19 종식을 위한 기도문을 나누어 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라디오 주파수를 안

내했다.

교회 설립 37년을 맞은 나성한미교회는 예배 전통인 37회 타종으로 시작된 예배는 찬양, 기도회, 설교 및 성찬으로 이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반가움을 나누고, 교역자와 봉사자의 인도에 따라 예배를 마쳤다.

신용환 목사는 “예배는 교회의 목적이며, 성도들의 의무”라며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나성한미교회 교역자와 봉사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렴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총 16,500달러 재정 지원

4차에 걸쳐 총 58명에게 전달, 등록금 동결 및 입학 관련 비용도 면제하기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을 위해 모금 운동을 펼치고 총 16,500달러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22명의 후원자와 2곳의 단체에서 모금한 이번 후원금은 4차에 걸쳐 학생 재정 지원은 교수 추천 및 정부 지원 혜택 미수해 유학생 등 총 58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가을학기 등록금 인상안을 전면 취소하고 1년 전 금액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6월까지 입학과 등록을 마치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입학 제반 비용(행정비, 입학비, 지원비 등 \$300)을 모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월드미션대학교는 Pell Grant와 Cal Grant가 모두 가능하므로 학부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학생은 학생용자가 가능하므로 공부할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교에서 학업의 뜻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대학협의회(ABHE)와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학교로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글로벌 리더십 전공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故 신현국 목사 추모예배, 재미고신총회장으로 드러져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영광스런 인생이었다”

에반젤리아대학교 전임 총장인 고 신현국 목사의 추모예배가 지난 27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담임 박석현 목사)에서 재미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진행됐다.

지난 20일, 향년 88세로 별세한 고 신현국 목사는 1932년 8월 22일 경남 창원에서 출생해 경남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학, 칼빈대학교 졸업, 고려신학대학원(제23회)을 졸업한 뒤 고신대와 재미 고신 대원, ITS, CGST, EU에서 강사와 교수로 사역했으며, 한국유사기독교연구위원회 대표를 역임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도미 후에는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제3대 위임목사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대, 11대 총회장, 재미고신대원 학장으로 섬겼으며,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9대 대표회장, 에반젤리아대학교 제2대 총장, 국제기독교이단연구회학호상임고문 등으로 활발하게 사역했다.



에반젤리아대학교 전임 총장,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2대 총회장 故 신현국 목사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추모예배는 박석현 목사의 집례로 서중노회장 김영석 목사(노스베이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박석현 목사가 “영광스러운 인생”(요한계시록 21:1-7)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고 신현국 목사님께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고,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안에 계셨고, 지금은 주님과 더불어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며 “신 목사님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 수고하며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다”고 전했다. 한편 신현국 목사는 70년대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하던 때에 흔히 이단이라고 부르는 유사종교 연구로 큰 업적을 쌓았고 교계에서 큰 명성을 날리기도 했다.

신 목사는 한국 보수신앙의 자존심,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의 거성인 한상동 목사 밑에서 신학과 목회를 배웠다. 한 목사가 신사 참배를 거부한 출옥 성도들과 개척한 부산 삼일교회에서 신 목사는 부목사를 하며 가까이에서 그의 목회를 접했다.

한국의 고신총회가 한상동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재미고신총회는 그의 제자인 신 목사에 의해 시작됐다. 1983년 고신총회가 동포사회와 미국 복음화를 위해 교단을 미주에 설립할 때 그 책임자로 과송된 이가 바로 신 목사다. 그가 처음 미국에 발을 들였을 때 전무했던 교단은 이제 미주 7개 노회와 130개 교회로 성장했다. 또한 고 이근삼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에반젤리아대학 총장이 된 이후, 이 학교 역시 연방정부의 인가에 이어 TRACS의 학위 인가까지 받아내며 급성장했다.

유족은 부인 신찬경 사모와 슬하에 자녀 신욱, 경미, 은미, 성욱이 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별에 1년간 숙성시킨 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 매 처

Space Eum Cafe 213.386.3896
3020 Wilshire Blvd. #100 213.605.2772
Los Angeles, CA 90010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שמ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주님의영광교회 '상담 핫라인 개설' 한인사회 섬긴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인근에 자리한 주님의영광교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지역 사회 섬김을 시작했

다. 상담은 법률과 행정, 복지, 이민·유학·신분, 직업 등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비롯해

중독(술·도박·마약·음란·게임), 자살, 가정, 인간관계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얻지 못해 어려워하는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한인 사회를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담과 문의는 이메일 glorygcj@hotmail.com 또는 전화 213-749-4500으로 연락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분야도 상담이 가능하다.

김동욱 기자

상담 분야	사역자
가정 (부부, 자녀) 관계	김상덕 목사, 김미영 전도사, 지데니스 목사
건강	하선례 전도사
기독교 교육	최영규 목사, 백승유 전도사, 황옥선 전도사
노숙자	박관용 목사, 정희경 전도사
노인, 장애	이창준 목사
도내이전	이은상 전도사
리모델링	구자용 목사
법률, 행정	구자용 목사, 정희경 전도사
복지, 쉼터	하선례 전도사, 정희경 전도사
성경, 이단	김은광 목사, 최영규 목사, 황옥선 전도사
영적전쟁	김인찬 목사, 김미영 전도사, 전상욱 전도사
온라인/미디어	황만호 목사, 백승유 전도사, 이은상 전도사
이민, 유학, 신분	한상인 목사, 정희경 전도사, 이은상 전도사
인간 관계	김상덕 목사, 김미영 전도사
자녀 학업 및 진학	최영규 목사, 한상인 목사, 함관호 목사
자살	박관용 목사
중독(술, 도박, 마약, 음란, 게임)	함관호 목사, 지데니스 목사, 황만호 목사
직업	구자용 목사, 한상인 목사
청소년	김인찬 목사, 함관호 목사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배출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우리는 함께 일어 섭니다-2020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뉴노멀 (New Normal) 시대,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컴패션은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교회의 목회적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더 나아가 나눔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6/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LA 시간; 동부: 오후 9시)부터 9개의 30분 강의를 웹세미나(웹inar·webinar)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한국 교회 및 미국, 호주, 캐나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담임목회자와 부목회자는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하면 되고 문의는 컴패션 미주사무실 대표인 문영명 목사 (714-383-3999)에게 하면 된다. <https://usk.compassion.com/thechurch/>

세미나에는 디지털마케팅과 데이터연구, 선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4일에는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와 지용근 목회 데이터연구소 대표가 <교회,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만나다:급변하는 시대속의 교회>, <교회 데이터로 읽



6월 3일 ~ 24일까지 웹세미나로 진행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4개국 교회 목회자 대상

다:지금 우리의 성도는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11일에는 미국 기독교 리서치 기업인 바나그룹 데이비드 킨난(David Kinnaman)대표의 <교회, 뉴노멀을 준비하다: 교회의 전략과 방향> 및 The Unstuck Group의 집콕벌린 목사와 Christ Fellowship Miami의 레이 디 아메스 목사의 온-오프라인 목회 성공모델과 Life Church의 캐빈 펜리와 카일 커터의 온-오프라인 목회 성공사례 강연이 준비돼 있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도입한 교회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8일에는 정동령 김천 더 세움교회 담임목사와 김원진 미국 뉴저지 예수반석교회 담임교회가 목회현장에서의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류용덕 한국컴패션 사역개발실장(목

사)와 <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선교적 관점에서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는 “교회는 지난 60여년 간 컴패션의 어린이 사역에 중요한 파트너로서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뉴노멀 시대, 교회의 목회적 고민을 나누는 자리에 미국에 흠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컴패션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컴패션은 전 세계 25개국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결연해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영적)으로 양육하는 국제어린이 양육기구다. 1952년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 현재 20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양육 받고 있다.

민족학교 김동조 신임 대표 임명

민족학교 신임 대표(Executive Director)에 현재 미주한인재단 글렌데일 회장, 글렌데일 YWCA 이사 및 LA 북부한인회 자문을 맡고 있는 김동조씨가 임명됐다.

민족학교는 지난 3월 2일부터 김영란 임시사무국장(Interim Executive Director) 체제로 운영해 왔다. 그 사이 민족학교 이사회는 대표 후보자 심여 명을 검증하다, 이달 18일 김동조씨를 대표로 최종 낙점했다.

김동조 대표는 1993년 LA시 검찰 한인범죄피해자 보조프로그램(SEVAP)을 창설해 거의 10여년간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야태 여성상담소(APWC) 소장 and 한인 가정상담소(KAFSC) 소장을 역임했으며, 약20년 간 비영리단체 운영에 관한 강의와 컨설팅을 했다.

김동조 대표는 “지난 35년간 한인사회에서 주로 범죄 피해자의 권익과 청소년 교육을 위해 일했다. 이제 그 초점을 이민자 권익, 특히 서류미비자와 다카(DACA) 학생을 위해 맞추려고



민족학교 김동조 신임 대표

한 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주 이민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어,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안젤라 오 민족학교 이사장은 “민족학교는 정의와 존엄성, 진보적인 행동이 핵심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들을 돕는 일과 더불어 민족학교가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이민자 권익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내 의사소통 강화,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테이션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할까? •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이제부터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6.25 한국 전쟁 70주년 행사

- 일시 :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장소 :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온라인 행사로 진행 : CTS기독교 방송 중계, 유튜브)
- 문의 : 강태광 목사(323)578-7933, 박세헌 목사(323)404-3147

- 주 관 - 세계기도모임 미 서부지부
- 공동주최 - 남가주 6.25전쟁 70주년 기념 사업회 / 세기모서부지부 / 은혜 한인교회 / 청교도 400주년 기념사업회 / 충현 선교교회
- 협력언론사 - 기독일보 / CTS기독교 방송 / KCBC 우리 기독교 방송
- 대 회 장 - 강순영 목사 / 민종기 목사 / 박흥기 회장 / 한기형 목사 / 한기홍 목사
- 준비위원장 - 김영구 목사
- 진행위원장 - 강태광 목사 / 박세헌 목사
- 실행위원장 - 양경선 목사

우리는 625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0

“이집트 청년과 IVc 이야기”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9주간 진행된 미주 48개 지역, 53개의 인터콧 선교회 ‘비전스쿨’이 은혜중에 수료식을 마치고 단기선교 지원자의 파송시까지 마쳤다.

6월에 계획했던 단기선교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열방 나라들의 입국 문이 열리지 않아 7월로 연기되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약 300명가량 각자 자기가 입양한 종족들을 향해 단기선교 훈련을 받고 기도로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비전스쿨 강사로 일찌감치 오셨던 이집트의 김길선 교사가 비전스쿨 후 아직 입국이 열리지 않아 기다리는 중에 필자의 교회에서 특별 선교집회를 마련하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필자가 김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며 느낀 것은 아! 선교사님들 마음은 항상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가 있음을 알았다.

김 선교사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 전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전스쿨을 받았던 한 대학생 청년이, 그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알게 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김 선교사 가정의 인도로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였다 한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예전처럼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못 가지면서 그리고 김 선교사가 미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가졌던 믿음이 약해지면서 이메일과 SNS 소통도 뜸해지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다 하며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교우들과 함께 이집트의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선교사의 눈엔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자기가 섬기고 양육하는 영혼을 위해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숨으면 찾고 하면서 긴 인내와 열심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애쓰는 최전방 장기 선교사들이 참 자랑스럽고 든직한 마음이 들었고 또 나도 목회에 대한 도전을 다시 받기도 하였다.

이번에도 미주뿐 아니라 전 열방 60여 개 나라에서 각기 비전스쿨이 모두 진행되었다. 물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론 집회 금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zoom영상 비전스쿨로 진행했다. 열방 선교지의 비전스쿨은 모이는 규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 미주에서는 각 지역의 참가자가 10명 안팎인데 비해 열방의 비전스쿨은 참가자 수가 이집트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파키스탄, 인도, 터키도 마찬가지다. 시리아 난민 비전스쿨도 열렸다.

이렇게 아랍권의 각 나라에서 비전스쿨을 수료한 청년들이 다른 나라로 단기선교(F.O.)를 다녀온 후 매년 한 번씩 7월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체 선교집회를 갖는다. 그 집회를 IVC(인터내셔널 비전 캠프)라 한다. 그 수가 3천 명에 이른다. 그들은 그 장소에 와서 서로 놀라고 감격해한다. 3박 4일 동안의 선교캠프를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은 대학생 선교사로 또 장기 선교사로 결단하는 청년들이 속출한다. 그렇게 열방의 선교현장은 뜨겁게 부흥하고 있다. 하나님의 열방교회는 오늘도 쉬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다. 필자의 소원은 그 선교부흥의 현장에 모든 지교회들이 다 참여하여 함께 선교부흥을 이루어 가기를 바란다.

선교부흥이 곧 하나님 교회의 부흥임을 믿는다. 최근 미국이나 한국의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는 가는데 교회 부흥 재기의 원동력은 열방 선교에 있다. 형식적, 1회성으로 하는 선교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전문 선교단체의 선교훈련과 지도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안내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열방을 밟게 될 때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믿는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3) 용서

효과적인 용서법(REACH)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행복으로 가는 왕도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주는 최선의 선물입니다. 나아가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복되게 사는 비결이 용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용서 명령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용서는 우리들의 심리와 육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병균에 대한 저항력과 심리적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실험은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두 종류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한 후에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 것입니다. 하나는 카르타 빈민굴에 사는 술주정뱅이가 테레사 수녀의 일을 묵시 방해하였으나 끝까지 용서하는 영화이고, 다른 것은 아버지를 죽인 잔악한 나치 장교를 복수하는 영화였습니다.

두 영화의 감상 간격은 1주일로 하였고 영화를 본 직후에 학생들의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을 검사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내용을 본 뒤의 감기 바이러스 저항력은 복수의 이야기를 본 뒤의 감기 바이러스 저항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떤 사랑의 능력에 연결될 때 병균에 대한 육체적인 저항력도 강해지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용서를 목격하고 용서를 생각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육체적 건강을 이끕니다.

용서의 유익을 몰라서 용서를 못하기도 하지만 용서가 어려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의 방법을 모릅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워딩턴 교수는 용서에 관한 오랜 연구로 용서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원수를 용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하겠다고 스스로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용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합니다.

워딩턴 교수에 의하면 용서에 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장 큰 장애물이 용서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용서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용서가 좋은 일이며, 건강에 좋다는 설교나 기사를 접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워 미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워딩턴 교수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꼭 신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종교적 신념만으로 완전한 용서의 실천은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워딩턴 교수는 용서의 열쇠로 ‘공감과 겸손, 동정의 감정을 기르는 것’을 꼽았습니다. 워딩턴 교수는 연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REACH 용서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제목에 필자의 해석을 더 했습니다. 효과적인 용서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회상(Recall)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한 회상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건과 정황을 객관화시킨 회상입니다.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섭섭하고, 더 분노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기억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공감(Empathize)입니다. 상처를 준 이웃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의 상황과 입장에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사건과 상황이 쉽게 이해됩니다. 상

대의 관점에서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상대에 대한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셋째, 이타 (Altruism)입니다. 자신에게 행복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이웃에게 용서를 선물해야 합니다. 용서가 나 자신에게 큰 선물이지만 용서받는 상대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용서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전 과정이 행복한 일이지만 상대의 유익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은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넷째, 실천 (Committng)입니다. 작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용서는 결단 후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작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용서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용서의 결단은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용서의 결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고 철회할 가능성이 큼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한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용서의 1차 완성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세요!!

다섯째 유지(Holding on)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용서의 유익을 기억하고 용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상처의 해소가 쉽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관계의 회복이나 정상화는 더 어렵습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와 상처로 인한 원한과 분노 극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용서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REACH 용서법은 지나간 일에 억울함과 분노를 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일의 부당함, 상처와 손실에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상처의 치유를 지향하는 과정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사건과 사람을 두고 지금 당장 “REACH”를 적용해 보세요! “REACH”로 용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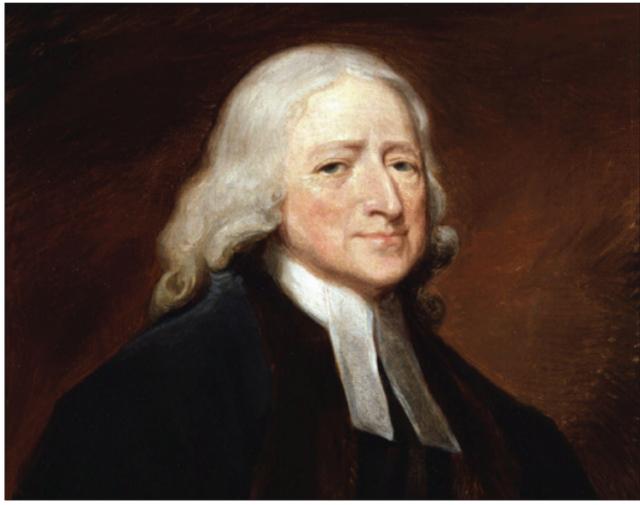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206.,LA CA 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5) 요한 웨슬리와 감리교 부흥운동

18세기 사도바울이라 불리는 요한 웨슬리는 부패한 영국을 유행 혁명에서 구하고 명예혁명을 안겨 준 부흥운동가요 신학자였다. 최고의 지성과 경건을 갖추었으나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뜨거움을 체험한 후 성령계 불들리자 그를 통해 영국사에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그 결과 영국의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다.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는 영국의 옴위즈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영국 국교회 목사 사무엘 웨슬리와 수산나 아네슬리의 19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5살 때 목사관에 화재가 일어나 가족들은 모두 피했으나 요한은 피하지 못했다가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에 구출되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셨을까?”를 생각하며 평생 헌신을 하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그리스어를 배워 원어로 신약성경을 읽었으며, 모친 수산나는 자녀들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훈련시켰다. 그녀는 매주 한명씩 따로 대화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요한은 매주 목요일 밤에 어머니와 잇을 수 없는 개인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요한은 17세 때 옥스포드대학교 크라이스처치 칼리지에 입학하여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곳에서 신학, 고전, 현대문학, 역사, 과학 등을 폭넓게 공부했다. 24세-26세 기간에 아버지의 교회 담임하면서 25세에 영국 국교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된다. 26세에 옥스포드대학 링컨칼리지에 연구교수로 돌아와 강의하면서 동생 찰스가 중심이 된 Holy Club 의 지도자가 되어 성경연구, 경건서적 읽기, 구제, 감옥 방문, 매주 2회 금식 등 경건 생활에 힘썼다.

이때 조지 횃필드도 찰스의 초청으로 Holy Club 에 참여하게 되어 웨슬리 형제와 평생 아름다운 우정

을 나누게 된다. 그 때 철지했던 그들에게 규칙주의자(Methodist), 초대교회, 성경벌레 등의 별명이 주어졌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윌리엄 로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의 부름” 등의 책을 읽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것과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를 ‘옥스포드 회심’이라 부른다.

조지아 선교의 실패

1735년, 32세의 나이로 옥스포드 대학 시절을 마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요한과 찰스 형제는 조지아 주의 선교사로 지원한다. 어머니 수산나는 남편과 사별한 상황이었지만 (한 아들만 남고) 두 아들이 선교사로 떠나고 싶다고 하자 “내가 20명의 아들을 가져 모두 선교사로 미국에 건너가서 비록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두 아들의 선교사 지원을 지지해 주었다고 한다.

57일간의 대서양 항해 도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온히 찬송하는 모습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도전을 받는다. 최고의 학력, 부모로부터 받은 훈련, 그리고 Holy Club 을 통한 경건 생활 훈련, 하나님 앞의 헌신, 성숙한 인격 등 선교사로서 성공할 모든 외적 조건을 갖추었지만, 선교지에서 내놓을 만한 열매 없이 여러가지 갈등에 선교사 생활을 접고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요한 웨슬리의 회심

영국에 돌아온 후 모라비안 리더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다가 35세 되던 어느 날 울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집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

고 사죄와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느껴졌다.

이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열심히 선포했지만 “과연 나는 구원 받았는가?”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긴 세월을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론적,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강한 확신이 성령의 비침 속에서 그에게 안겨 온 것이다. 이를 ‘울더스게이트 회심’이라 부른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확인 후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고 전에 핍박하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요한은 고백했다. 요한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동생 찰스를 만났는데 찰스도 일주일 전에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비슷한 체험을 했다면서 함께 기뻐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

그 후 웨슬리 그룹에서 ‘감리교의 오순절’이라 부르는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웨슬리 형제는 그토록 갈망하던 확신과 평안을 찾음으로 일생을 쏟아 부을만한 메시지를 찾았고 그들의 가슴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워졌다. 1738년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적인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성경적 기독교에 대해 설교하기로 다짐한다.

요한 웨슬리의 강력한 설교에 교회들이 설교강단을 내어주기를 거부하자 조지 횃필드처럼 야외설교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는 그의 야외 설교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 후로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 원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며 영국 곳곳을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성령과 복음에 사로잡힌 요한 웨슬리는 큰 확신을 하고 50년간 말타고 25,000마일 즉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면서 4만 번의 설교를 통해 복음으로 영국을 뒤흔들며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감리교운

동은 영국 사회에 신선한 바람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감리교운동은 무능한 교회들을 살렸고 개인 영혼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사회를 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이상을 심어주었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소생시켰다.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 정리

1. 성경연구와 풍부한 학식, 구제와 선행과 금식, 철저한 헌신과 인격을 갖추었지만 조지아 선교에 참담한 실패를 경험 했으나 이런 훈련이 성령계 사로잡히자 영국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 받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만 하신다” 라고 말하며 매일 두 시간 이상씩 기도하며 평생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뢰했다.

2. 웨슬리가 청중들의 죄들을 지적할 때마다 회중들은 통회의 눈물, 죄사함의 감격으로 인한 찬양, 기도 소리로 설교가 안들릴 정도로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곳곳에 강력한 회개운동, 사회 변화운동이 일어났다.

3. 조지 횃필드와 요한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대규모 야외집회의 불길은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함으로대형 야외집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있다.

4. 루터의 ‘오직 믿음’,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다 보니 인간의 책임이 무시되는 경향이 심했고, 믿는 자들의 방탕이 심해졌다. 그래서 웨슬리는 ‘오직 믿음’에 ‘믿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야한다’ 는 성결론을 가미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인간 편에서 책임있게 반응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5. 조지 횃필드는 곳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으나, 요한 웨슬리는 회심시키고 회심한 자들을 속회를 만들어 성장하도록 체계적 양육을 했다. 그는 과감하게 회심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매주 속회를 인도하게 했을 뿐 아니라 가슴이 불붙은 자들을 순회전도자로 세움으로 부흥운동을 확산 시켰다.

6.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은 영국 사회에 사회 정의, 사회개혁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었다. 윌버퍼스 중심의 노예제도 폐지운동, 미성년자 노동 폐지,금주 운동, 배우지 못한 아이들 교육시키기 등 사회 개혁 운동들이 활발히 일어났다.

7. 조지 횃필드와 요한 웨슬리를 통한 대 부흥운동은 영국주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그 후 영국은 역사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오늘날 공부도 많이하고 전문적인 단체에서 잘 훈련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성령계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Gas가 없어 시동이 안 걸린 고급 자동차처럼 달리지 못하고 있다. 요한 웨슬리를 붙잡아 영국을 뒤흔드신 성령님! 우리를 취하시어 정결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부흥의 도구들로 사용하시어! 부흥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곳곳에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온라인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6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트럼프 “조지 플로이드 사망 매우 충격...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

최근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케일리 매카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영상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고 밝혔다.

매카네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갑자기 그 영상을 봤는데 매우 분노했다”면서 “그 장면은 매우 지독하고 끔찍하며 비극적이었다.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은 FBI에 연락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지난 밤에 영상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빴다”면서 “사건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FBI가 자세

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짊어 눌렀고, 그는 결국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꺾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조용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동영상 찍어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동영상을 봤다. 플로이드는 살해됐다”고 했다.

상원 법사위원장 린지 그레햄(공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미트 롬니 주지사는 “어떤 미국인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백악관 제공

맹세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충격과 분노는 그러한 인종 차별적 학대를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한 집단적 결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마찰 바렐레트 대표 역시 28일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한 행위로, 무장하

지 않은 흑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 당국은 이 같은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의가 이뤄지도록 진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침례회 전미아프리카계미국인펠로우십 마셜 오스베리 회장은 밥티스트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흑인의 부당한 죽음에 관한 사실

을 접했을 때, 불안하고 낙심되고 슬펐다”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삶은 (시민의) 보호와 봉사를 담당하는 이들에 의해 끝났다. 그들은 판사, 배심원, 사형집행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네소타교회협의회 회장 폴 드영(Curtis Paul DeYoung) 회장은 교회들에게 “슬픔에 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항의하며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시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지난 밤 미니애폴리스 살인 현장에서 열린 시위에 있었다. 이 순간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다가와 그들과 함께 하라”고 격려했다.

美 교계도 과잉 진압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 비판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한 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자, 교계 지도자들도 ‘악마적 행위’라며 분노했다.

2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

백인 경찰은 흑인 남성에 수갑을 채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다. 피해 남성은 “제발,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고 간청하지만 경찰은 꺾이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여성이 “당신이 지금 그의 숨을 끊고 있다. 코에서 코피가 난다. 코를 보라”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그를 들것에 실을 때까지, 경찰은 그를 약 8분 동안 계속해서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다. 현장을 촬영했던 한 행인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남성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락교회(Rock Church) 마일스 맥퍼슨 목사는 트위터에 “또 다른 흑



조지 플로이드. ©조지 플로이드 페이스북

인이 카메라 앞에서 죽었다. 이번에는 4명의 경찰관이 그를 붙잡았다. 마음이 찢어진다! 수갑을 채운 사람의 목을 그가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무릎으로 누른다”라는 글을 남겼다.

인기 CCM 가수 매튜 웨스트(Matthew West)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지플로이드의 목숨을 앗아가는 영상을 보니 토할 것 같다. 내가 목격한 것은 모든 면에서 잘못됐고 악하다”고 남겼다.

노스달라스에 위치한 포터스하우스의 셰릴 브래디 목사는 “지금

이야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신앙의 공동체가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본 것은 경찰이 바닥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한 남성의 목숨을 실제로 앗아가는 장면이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국제적인 복음전도자인 크리스틴 케인은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플로이드의 사망 영상을 본 이후, 유색인종들과의 경험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니애폴리스 제이콥 프레이 시장은 흑인 공동체를 향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프레이 시장은 “5분 동안 우리는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에서 실패했다. 어제 시카고에서 발생한 일은 정말 끔찍하다.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美 디즈니 ‘픽사’, 남성 동성애자 커밍아웃 소재 애니메이션 논란



©픽사스튜디오

미국 월트디즈니의 자회사 픽사 스튜디오가 성소수자를 전면에 내세운 애니메이션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픽사는 스트리밍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9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Out)’을 선보였다. 이 애니메이션은 남성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행위)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상영 중이다.

그동안 성소수자 캐릭터가 픽사를 비롯한 디즈니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적은 있으나, 주인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즈니는 TV 프로그램이나 2018년 상영된 영화 ‘미녀와 야수’ ‘돈 맥스투핀스’ 등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를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7년 방영된 TV 프로그램 ‘Star vs. the Forces of Evil’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공주’를 등장시켰고 동성 간 키스신을 선보여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디즈니는 ‘앤디 맥’ 시즌 3에서 처음으로 10대들의 동성관계를 묘사한 디즈니는, 지난 2014년 아이들을 위한 쇼 프로그램 ‘굿 럭 찰리’(Good Luck Charlie)에서 처음으로 성인 동성커플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이에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 사이에서는 디즈니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 가정협회는 “디즈니의 동성애 어젠다 지지는 비도덕적이며 죄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美 연합감리교회, 내년 총회서 동성애 입장 결정



지난 2016년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교단총회에서 총대들이 기도하고 있다. ©UMC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교단 분립 안도 다뤄질 예정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연기된 총회 날짜를 결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총회위원회는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총회가 내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린다고 발표했다. 장소는 예정했던 장소와 같은 곳인 미니애폴리스 컨벤션 센터로 정해졌다.

김 심슨 위원장은 “새롭게 정해진 총회 날짜가 학기가 시작되는 전형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젊은 총대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유감”이라며 “총회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것은 항상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같은 요청은 총회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위원회에 도달하지 않았다. 날짜를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며 “날짜를 다시 변경하려면 총회를 2022년에 개최해야 하는데 이는 연합감리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다면 2021년 모임을 하는 것이 교회 운영에 중요하다. 연차 대회 날짜에는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면서 “2022년으로 총회가 연기된다면 예산, 관할 회의, 중앙 회의, 감독 선출, 감독 퇴직

일자, 총회 이사회 임기 및 교과 지도자 선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통상 UMC 연차 총회는 4년마다 전 세계 감리교회가 모임을 가져왔다. 이전 총회는 지난 2016년 열렸다.

지난 몇 년 간 UMC는 성소수자(LGBT) 문제에 대한 교단 내 논쟁이 극심했으며 결국 지난 해 2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동성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이 포기사를 밝히지 않아 일부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은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토폴’이라는 계획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UMC를 탈퇴하고 교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2천5백만 달러(약 290억원)를 받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된다.

올해 UMC 총회에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동성애 문제와 관련한 교단 분립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미시간 특별 회의에서 이 계획안 제출 안건을 두고 총대들이 투표한 결과 927개 92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

하지만 분립 안건이 미시간 특별회의에서 공식승인 된 것은 아니었으며 분립 계획안은 5월 미네아폴리스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합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었다.

이미경 기자

“교인 절반은 온라인 예배 안드려... 디지털 전환 시급”



©Unsplash/Brooke Cagle

최근 여론조사에서 교인 중에 거의 절반은 ‘지난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기독교 여론 조사기관인 바르나 리서치 그룹의 이번 조사 결과는 전직 변호사이자 캐나다 온타리오주 코넥서스 교회의 창립 목사인 캐리 니우호프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교인 중에 48%는 지난 4주 동안 온라인상에서 어떤 교회 예배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청한 나머지 52% 중에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는 40%에 그쳤으며, 다른 교회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23%였다.

니우호프는 이에 대해 (‘교회의 문을 다시 열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믿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온라인 플랫폼인 글루(Glu)가 실시한 여론 조사를 인용, 수천명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공공 장소에 다시 모이는 것이 안전인가’에 대한 합의가 부족

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중 21.5%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적은 지역에 한정해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7%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금지 명령 해제시 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14%는 ‘지역 사업장이 재개할 때’, 그리고 8%는 ‘지역 식당들이 재개할 때’로 응답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와 ‘확신할 수 없다’도 각각 15%, 10%로 나타났다.

니우호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Digital Shift)’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디지털 교회를 또다시 보류한다는 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디지털 영향력을 가진 물리적인 조직이 아니라 물리적인 표현력을 가진 디지털 조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공복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7:30)오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0.1만2세를 목회하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선교를 영혼으로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우회)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복이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엔드) 소(세)예배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일)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모이기 만리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삶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과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e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종교개혁기념회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증보기도회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벨리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6
T. (818)935-5887

MP제물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 성경회 목회 7:45
588 Altiss Ave., Monterey Park, CA 91753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6
T. (818)935-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 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어라, 함께 가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중국, '반인권' 논란 '홍콩 보안법' 가결



©The White House/flickr/Public domain

“언론·표현·집회의 자유, 모두 위협할 것”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반인권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초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적 2천956명 중 2천885명이 출석해 찬성 2천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이 법 초안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조직 결성 등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 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일어났던 시위가 더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히 미국이 제재를 시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사실상 중국이 홍콩을 독립적인 자치 지역(일국양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CBN뉴스는 “이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국양제

를 약속했지만 보안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국일제'(한 국가 하나의 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한 홍콩 거주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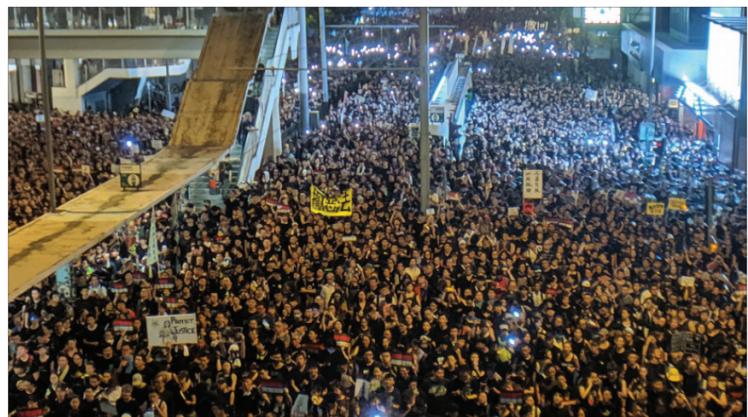
이 매체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 야치우 왕 연구원은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홍콩 정부나 중국 공산당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지난 해처럼 저항 시위를 할 경우 기소나 구금, 형사처벌을 당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딘 쉹(Dean Cheng) 수석연구원도 “일국양제는 '한 국가, 두 가지 제도'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선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저항의 자유가 모두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홍콩 사법 제도의 독립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홍콩이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에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CBN뉴스는 전했다.

김대원 기자

“홍콩 보안법 통과... 종교의 자유 제한 우려”



지난해 홍콩에서 열렸던 대규모 시위 모습 ©Studio Incendo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 28일 통과되기 직전 독과 박해 감시단체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조직 결성 등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제정으로 홍콩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누려온 자치권과 시민의 자유를 상실할 우려가 높아졌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즈 미국 지부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회장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홍콩을 방문했을 때 미디어 검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영향을 다시 보게 됐다”고 밝혔다.

커리 회장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홍콩의 일반시민과 기독교 공동체 모두

새로운 조치로 인해 어려워졌다”며 “중국 교회에 많은 감시와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홍콩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제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국의 제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박해 계획을 신속하게 개발, 이행하고 있다. 이 지역과 전 세계에 걸쳐 신앙의 자유로운 실천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홍콩을 향한 움직임은 서구 세계가 홍콩 시민을 대신해 발언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의 일부”라며 “중국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단시간 안에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한국 순교자의 소리] 금주의 중보기도(6/1~6/7)

- ◇06/01 이집트: 이집트 교회가 중동 전역에 사역자들을 계속 파송하도록.
- ◇06/02 북한: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 ◇06/03 아프가니스탄: 모든 부족과 언어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 ◇06/04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 ◇06/05 네팔: 성경을 나눠주는 사 람들을 보호해주시길.

- ◇06/06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 ◇06/07 말리: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 한국 VOM(Voice of the Martyrs Korea)은 펴막받는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지상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홈페이지 <https://vomkorea.com>



한국문화재단이 28일 저녁 창립4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개최하는 '한국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웰위풍류' 포스터 ©한국문화재단

“무당 곳으로 코로나19 물리친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가 28일 '무당 곳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친다? 한국이 미신 국가라고 낙인찍힐까봐 두렵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와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전 국민들이 '생활거리두기'를 통하여 역병(疫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단에서는 28일 저녁 7시 30분에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의 한 복판인 여삼동에 불러들여 '굿판'을 벌인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최하는 이유로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역병을 물리치고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불러들이고 달랜다고 현대병인 바이러스가 물리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사를 외교부, 문화재청, KB국민은행이 후원한다고

한다. 또 이 행사에는 문화재청장,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제례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 보겠다는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방의 무당들을 서울로 불러서 '굿판'을 벌인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리친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우매한 일이라고 본다”며 “더군다나 외교부까지 가세하여 '굿판'을 벌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다고 본다. 한국이 무당으로 하여금 역병을 물리치려 한다는 미개국(未開國)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국가기관들이 불안한 국민의 마음과 정서를 이용하여, 흑세무민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제라도 굿판을 걷어치우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단합된 힘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리고 우상과 귀신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공훈과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형구 기자

이동원 목사가 말하는 교회 창립의 3가지 비전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가 지난달 31일 창립 26주년을 맞아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구촌교회 창립 당시의 비전 3가지를 나눴다.

이목사는 “1993년 11월 둘째 주일 수지에 성경 스마트라는 카세트 테이프 공장에서, 지구촌교회 탄생 준비 기도회로 65명의 성도와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교회를 매주 모일 때마다 공부하며 건강한 교회 개척의 꿈을 꾸고 기도했다”고 했다.

이어 “94년 용인 쪽 속대 수양관에 200명이 넘게 모여 수양회를 갖고 94년 첫째 주에 300명의 성도와 탄생 예배를 드렸다. 이때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가 함께 모여 우리 교회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었다”고 했다.

그는 “94년 5월 양재동에 있는 햇빛회관을 빌려 전도잔치를 위해 모였을 때 한국교회를 위한 지구촌교회 창립을 선포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에 창립기념 주일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목사는 “미국 워싱턴 D.C 메릴랜드 쪽에 있는 교회에서 이민목회를 하다 49살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며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 창립의 3가지 비전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목사는 “지구촌교회의 창립 비전 첫 번째는 복음적 신앙고백이 분명한 교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제자)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다”며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새생명만이 끝나면 소감문 발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다. 이 복음적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창립 비전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

회를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 개신교의 공통된 해석 가운데 중심은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이 고백 위에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며 “창립 초기부터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훈련과 함께 강조한 건 중보기도이다. 교회가 흔들리면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없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기도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 하는 교회는 사탄이 결코 흔들 수 없다. 저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파수꾼 같은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왔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목사는 “창립비전 세 번째는 성도들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이 아닌 에를레시아를 뜻한다. 즉, 세상에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이다. 제자들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진다”며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모두 연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을 훈련시켜 제자다운 제자를 세울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고 했다.

이어 “목회를 할 때 진정한 목표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셀 교회를 하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세상이 변해도 흔들림 없는 교회, 여전히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 그것이 지구촌 교회가 세워진 이유”라고 했다.

전민수 기자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창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창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항찬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목·토새벽예배 오전 6:00
 목·토새벽예배 오전 6:00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내세움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원생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5:30am
 (유·초·중·고·대학원생부) 주일 6:00am
 금요일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주일 9:00am
 목요일예배 화-금 5:30am
 (유·초·중·고·대학원생부) 주일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목요일예배 : 오후 9:45
 목요일예배 : 오후 11:00
 목요일예배 : 오후 11:00
 목요일예배 : 오후 11:00
 목요일예배 : 오후 11:00
 목요일예배 : 오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 오전 8:00
 2부 예배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전 11:30
 창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말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창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2부 예배 : 오전 11: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청년부 : 오후 2:00
 Hispanic Service : 오전 9: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예배 오후 7: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EM 예배 오후 1:30(창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창년 영어)
 정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창년 영어)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예배 오후 7:0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회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무: 조현숙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와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팬실베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학사과정 (B.Th/B.A) 126학점</p>	<p>석사과정 (M.Div/M.A) 96학점</p>	<p>박사과정 (D.Min/Ph.D) 48학점</p>	<p>3월16일 개강</p> <p>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p>
---	---	--	--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낭비하지 말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쓰레기를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절약과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돈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경제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을 얻게 되면 빛진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빛 때문에 증으로 팔려가는 것을 봅니다. 돈이 소중한 것은 돈으로 쌀을 사기 때문입니다. 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쌀을 통해 우리 생명이 보존되고 힘을 얻습니다. 돈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도와 줌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부”라는 말의 정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면 돈의 소중함을 더욱 느낍니다. 돈의 소중함을 안 사람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평소 저축을 하게 됩니다. 돈을 저축해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

평하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선용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낭비하기에는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는 실패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낭비한다는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은 실패하기 전보다 훨씬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 속에는 성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실패 속에 담긴 성

공의 씨앗을 찾아내어 키울 줄 압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롬 8:28).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길은 고난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시 73:28).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고난은 그릇된 행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시 119:67).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길은 고난을 스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고난은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원숙해 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히 5:8).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흘린 보혈을 통해 우리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 두신 변장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오해되는 말씀,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종종 오해되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이 성경의 영감과 친구약 성경의 조화와 일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오해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성경강림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이해하며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여호와와 의 책 곧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이해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빠진 것이나 그 짝은 광야에 퍼져 사는 짐승과 새에 대한 말입니다. 사막의 짐승들은 ‘애들이 철저히 멸망된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문법으로 보면, 이사야 34:16의 “여호와와 의 책”은 남성 단수로 쓰인 명사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것들”이라는 여성 복수 명사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들)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는 말은 바로 앞의 15절에 나오는 “각각 제 짝과 함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것처럼 그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져 애덤 땅이 황폐하여 짐승의 거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부영이가 깃들여 알을 낳고” “솔개들이 각각 그 짝과 함께 모이리라”(사 34:15)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둘째로 역사적인 해석에 의거할 때, 실제로 애덤은 이사야 34장처럼 철저히 파괴되어 지금까지 황무지로 남아있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멸망된 애덤의 지경에는 11-15절에서 말하는 각종 짐승이 살아갑니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영이, 까마귀(사

34:11), 승냥이, 타조(13), 이리, 숫염소, 올빼미(14), 솔개(15)는 폐허가 된 애덤을 가득 채운 짐승들입니다.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어 말씀에 기록된 짐승이 짝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언의 성취를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 이사야 1-35장의 큰 맥락 가운데서, 33-35장은 결론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세 개의 장은 악한 나라의 표상인 애덤의 붕괴를 말하는 34장과 선민 유다의 회복을 말하는 33장과 35장의 내용과 대칭구조를 이룹니다. 애덤은 혼돈과 공허,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처하지만, 시온과 유다는 메마른 땅이 회복되듯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35:1). 이는 예수님과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종말에 이르러 로마서 9-11장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의 회복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적인 외침은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호와와 의 입이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역사 속에 말씀을 이루시고, 여호와와 의 손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의 예언도 이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박진우 목사
켈러한인제일침례교회 담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게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6-28)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간속에 반드시 알아야 할 두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잘 모를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은 잘 안되어서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상처로 아파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기도하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잘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냥 탄식도 아닙니다. 말할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간절히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를 보고 아파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까요? 27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직면한 어려움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누가 선을 이루는 건가요?

우리인가요? 이 나라의 정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알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자입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열심히 성경공부하는 자인가요?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인가요? 열심히 헌금을 하는 자인가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뭘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받을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겁니다. 무엇을 받았나요? 네,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구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상처받은 것, 비참한 것, 초라한 것, 죄짓고 넘어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인 상황 즉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것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직면한 어려움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가지 진리를 확실히 알고 붙들면 지금과 같은 힘든 상황을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일티슈
주방세제
2592기
공미라고
머그컵8원봉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년 내 사고면접기 영구수리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짚어봐야 할 2가지 신학적 쟁점



정성욱 박사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1. 종말론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각성: 밝고 행복하게
2. 조직적·외면적→유기적·내면적·생명적 교회론으로

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유독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해 왔다. 특히 1992년 다미선교회 사태는 한국교회에 종말론에 대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진행된 신천지 사태 역시 종말론에 대한 혐오증을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종말론이나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는 안타까운 풍조가 한국교회 내에 지배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종말론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성경적인 종말론을 확립해야 한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다름 아닌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디도서 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림과 종말은 “복스러운 소망”이요 우리의 하나님 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

장차 망할 성(성)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종말론으로 무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인류 역사의 미래가 이와 유사한 사태들로 점철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는 안 된다.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된다. 도리어 이러한 사태들이 주님 재림의 확실한 징조임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신부의 종말론으로 무장해야 한다. 다시 오실 신랑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준비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종말론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의 교회론이 한 차원 더 깊어져야 함을 각성케 해주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지배해왔던 교회론은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이다.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이란 교회의 본질을 물리적 건물로 보거나, 교회 내의 다양한 직분과 오프라인 상의 모임이나 회의를 포함한 조직적인 차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한국교회를 지배해온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이 모두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회론의 핵심인 유기적·내면적 교회론은 심각하게 약화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무시되고 약화되었던 유기적·내면적 교회론을 다시 회복하고 확립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의 강점을 살리면서, 그 약점을 극복해 내야 한다.

유기적·내면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을 어떤 건물이나 외적 형태로 보지 않는다. 도리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본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막힘이 없는 소통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끈끈한 유기적 공동체로 본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

질을 희생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생명 공동체로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영적 가족으로 본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6-18)”.

이런 유기적·내면적·생명적 교회론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갈 때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의 강점도 살려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막힘이 없는 소통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끈끈한 유기적 생명 공동체임을 직시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프라인 모임을 성경적으로 강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4-25절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물론 오프라인으로 모임 수 없는 비상 사태에서 온라인 모임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모임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최선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오프라인 모임이 재개되어야 하고,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성도의 양육과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 그리고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공적 사역을 힘있게 회복해야 한다.

유기적·내면적·생명적 교회론의 이름으로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의 정당한 부분이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무시해왔던 유기적·내면적 교회론이 복권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동시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오프라인의 모임을 어떻게 더 성경적으로 깊은 모임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교회에 복된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확립과 유기적·내면적 교회론의 복권이다.

더 이상 종말론의 혼돈과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성숙한 종말론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적·외면적 교회론에 매몰되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상실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물질과 목숨을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 지배하며, 막힘이 없는 소통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끈끈한 유기적 생명 공동체임을 깨닫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몰입해야 한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갈 때, 한국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일구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20년의 남은 기간 동안 이 거룩한 일들이 이뤄져 가길 간절히 기도한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욱선교
박상원 목사

“이 아낙네 새끼, 공산주의 도덕을 풍구멍으로 배웠는지 말해 먹는 꼴이 가룟 유다는 저쪽 구석에 가서 말라붙어라 할 정도구나. 오늘 참으로 재수가 없네.”
상대가 남자라면 당장에 주먹

질을 하겠건만 여자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자의 입을 풀죽이 되게 만들어야 했는데 방법이 없었다. 지독한 말로라도 여자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쏟아 내야겠다고 두 손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아낙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아무리 독한 말로 공격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다만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는 썩은 냄새만 풍긴다”며 혀를 쫓쫓 잘 뿐이었다. 그러더니 이내 돌아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다. 내가 온몸이 부르르 떨리도록 싫어하는 말이 귀신 어찌고 하는 것인데, 계속 그 점을 불들고 풍당풍당 말대꾸를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

았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가녀린 여자를 어찌지 못하겠으니까 괜히 친구를 불들고 늘어졌다.

“친구가 왔는데도 인사는 고사하고 대가리를 틀어박고 앉아서 염불이나 외우고 있나? 야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의 거세찬 바람이 네놈의 종자들을 완전히 도덕적인 병신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정신 나간 병신들을 향해 ‘고난의 행군’(북한이 1990년대 중·후반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외치며 죽음으로 내모는 어버이 장군님도 참 어리석고 불쌍하구나. 이

런 것들이 고난의 행군을 온전히 결속하고 이 나라를 굶주림에서 해방하는 데 일선에서 투쟁하는 혁명투사들이라니 지나가던 꽃재비들도 웃겠다!”

예수님은 사람이 마음에 담겨진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고 하셨는데 그날 내가 그랬다. 나를 농장으로 추방시킨 김정일 일당들에게

품었던 분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반동 새끼라고 내 입으로 떠든 셈이었다. 당시 내 입에서 김정일을 비난하는 말이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자 훗날 나와 함께 정의라는 이름으로 도적질을 일삼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계속)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세주교회), 주성태교수(경희대), 이종희교수(에스대), 송정영목사(복음선교), 안준목사(중앙대), 신정민목사(CC), 유영진목사(중앙대), 김인식목사(CC),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 영의 책은 아예 번역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원/영)과 수년 빛을 얻지 못했던 복한 권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만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복음통일인 환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세트오더링: 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부해 드립니다.

기드온동욱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TOPMEDIAUSA Custom Market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GOOD FRIENDS FOR CHURCH 미디어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40:1-11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이사야 40:1-11

1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찌니라 3 외치는 자의 소리 여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 (중략) ...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은망덕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본능과 그 욕구를 쫓아 마귀와 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붙여서 70년 세월을 종노릇하며 비참한 신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 여호와와 회복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 회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자녀의 고통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제로 볼 때에 장차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지난 후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목자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70년간의 죄 값을 치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들은 비참했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 희망적인 소식을 외치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프르포레야'라

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목자인 이사야에게만 들리도록 외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외침은 이사야의 영적인 귀에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음성을 듣고 맡기신 자기 양떼에게 다시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목자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해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신학적 편견으로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이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은교회에서는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대언케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른 설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평탄케 하라는 외침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에 골짜기가 돋우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깊이 숨겨 놓았습니다. 그 죄악의 골짜기를 다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이제 회개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면 더 이상 죄악을 숨길 수 없도록 골짜기로 평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산마다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은 자기를 들어내기 좋아했던 교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다음으로 고르지 않은 곳과 험한 곳이 평탄케 된다고 하십니다. 고르지 않다는 것은 울퉁퉁하다는 것이고, 험한 곳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인생의 심령이 강박하여 모든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올 수 없게 다른 사람을 향한 가시를 뺀고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여 평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골짜기와 교만의 산, 인간관계에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을 회개함으로 평탄케 만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이십니다. 이 회개를 통해 예루살렘 회복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 육신의 세상조건은 풀과 같이 시들

6-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듣고도 영적소망보다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조건을 위해 더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 생각하고 당장 급한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산 결과가 무

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70년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육체가 들에 있는 한 포기 풀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자기의 소임을 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열매도 다 떨어져져서 새나 들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육체가 가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처럼 하나님의 입김 앞에 그저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영적인 소망으로 가꾸어 가야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긋나면서까지 육체의 입장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를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기를 진실로 힘쓸 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서둘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삽니까? 여전히 풀과 같은 육체에 얽매어 살기에 하나님의 기운에 그것들이 다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3.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강한 하나님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향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실컷 얻어터진 자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 할 때에 그들의 형편과 처지, 환경과 분위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못할 것이라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당하는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보여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형편과 처지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잠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택함 받은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아 모든 형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 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 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 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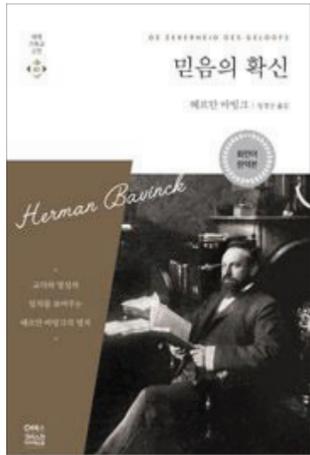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헤르만 바빙크의 숨겨진 명저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헤르만 바빙크 | 임경근 역
CH북스 | 176쪽

“바빙크의 『믿음의 확신』은 작지만 특별한 고전적 저술이다!”

과학은 인간적 확신에 만족, 종교는 신적 확신 요구
믿음의 확신, 의식 못하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가장 깊고 친밀하며 사랑스러운 동시에 가장 끈질겨

“이제 의식은 우리 시대의 질병이 되어서, 일련의 도덕적인 문제들과 전염병들을 야기시켜 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고려한다. 그들은 물질을 신격화하고, 재물을 숭배하며, 힘에 영광을 돌린다.”

믿음(geeloof)과 확신(zekerheid)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의 원칙들을 통해 신구약 성경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묶여 있었다.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 근거와 확신의 가장 깊은 토대들을 탐구할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이러한 상황은 점차 변화됐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사람들은 권리들을 찾기 시작했고, 비판적 이성으로 모든 권위와 결별했으며 자신의 신앙과 단절했다. 신학자들도 가세해 통일된 사고와 일관된 방법론, 믿음의 확신과 변증의 열심 대신 수많은 질문과 의심, 비판들로 요동하고 있다.

2020년 오늘의 이야기 같겠지만, 100년 전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가 했던 지적이다. 대작 <개혁교의학>의 저자로 유명한 그는 강연을 기초로 한 <믿음의 확신(De Zekerheid des Geloofs)>을 통해 ‘믿음의 확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바빙크에 따르면 ‘믿음의 확신’은 학문적·신학적이서뿐 아니라 실천적·신앙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다 행복하게 죽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하며 위에 있는 것들에 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 강연한지 몇십년 뒤, 죽음의 침상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학문이 내게 준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 교의학 또한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책에서도 그는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확신이다. 우리는 흔히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인

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이다.”

과학 발전으로 인한 문명 발달로 ‘희망’이 꽃피던 시대, 바빙크는 예리하게 진술한다. “과학은 우리의 오감과 이성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 과학이 하나님도 없고 선이나 악도 없으며, 심판과 형벌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고 단언한다면, 그것을 논란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해줄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라.”

모든 인간 영혼은 그러면 과학적 추론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이 궁극적인 질문들은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신비와 기적’이란, 사실 과학적 체계 아래에서 더욱도 드러지지 마련이다. “과학은 인간적인 확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반면, 종교는 신적 확신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위해 논리와 증거를 요구하지만, 바빙크는 “우리는 과학적인 증명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들 및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얻거나 유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것들은 지성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에 우리 영혼과 심령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한다.

저자에 의하면 믿음은 언제나 참되거나 참된 것으로 여겨지는 계시, 권위, 신적 말씀에 입각해 있기에, 믿음의 확신은 언제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이다. ‘과학적 확신’은 합리성에 의거해 ‘믿음의 확신’보다 더 보편적 토대를 지니지만,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대상을 받아들여 서로 결합되는 힘에 있어서는 ‘믿음의 확신’이 월등하다.

“믿음의 확신들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깊고 친밀하며 사랑스러운 것인 동시에 가장 끈질긴 것이다. ... 과학적 확신은 화형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확신은 아주 다르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서, 우리의 실존을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박멸될 수 없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수형이든 십자가형이든 화형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긴다. 자신의 믿음을 잃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잃게 되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자기 자



헤르만 바빙크.

신을 지키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가장 완벽한 안식이고, 지성의 가장 고귀한 자유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 해가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큰 확신을 갖는다.”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 확신한 것처럼, 헤르만 바빙크는 “신자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credo, ergo sum, ergo Deus est)’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타종교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어떤 식으로 서로 다르게 찾아오나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신앙과 불확신’을 갖게 됐는지 살펴보고,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성경과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에 따라, 믿음을 구원의 여정(heilsweg)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두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180

도 달라져보이게 된다. 구원의 여정은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 위에서 있다.”

두껍지 않은 책 <믿음의 확신>은 화려한 완역본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저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독자들의 마음에도 확신을 심어준다.

헤르만 바빙크는 캄펜(Kampen)에 있는 신학교와 레이던 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초빙글리의 윤리학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프리아너커에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한 후 1882년부터 캄펜 신학교 교의학 교수로 20년간 봉직했으며,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뒤를 이어 1902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교의신학 교수직을 맡았다.

주 저서는 <개혁교의학(전 4권)>이며, 이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개혁교의학 개요>를 펴내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개혁신앙은 믿음을 구원의 마지막에 두지 않고, 구원으로 가는 길의 시작에 둔다. 믿음을 향해 가지 않고, 믿음에서 출발한다. ©픽사베이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여러분의 관심을 사랑합니다!

정부 대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과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센서스 인구 조사는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히 집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집계 결과로 모든 정부 대표의 규모가 책정되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확실히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관심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